

이재용 회장, UAE 등 중동 현장경영

AIDC·에너지 인프라 사업기회 발굴

(삼성전자)

9개국 임직원에게 선물·편지 전달
알다프라 발전소 건설현장 방문
시장 변화·향후 사업방향 등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중동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임직원 격려에 나섰다.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2일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 있는 알다프라 가스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 회장은 현장 직원들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공사 일정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삼성물산·삼성E&A 경영진과 중동 시장 변화 및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알다프라 가스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이 현지 건설사 트로잔 제너럴 컨트랙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 중인 대형 전력 인프라 시설이다. UAE의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전력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물산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통해 축적한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중동



21일(현지 시각 기준)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알다프라(AI Dhafra) 가스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E&A 역시 UAE를 중동·아프리카 사업의 거점으로 삼아 정유·가스·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삼성은 기존 원전과 가스복합발전 분야를 넘어 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등으로 사업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현장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양사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외 사업 현안과 현지 근무 환경 등을 논의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임직원들의 안전과 사기 진작을 직접 챙긴 것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6일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이란 등 중동 9개국에 파견된 관계사 임직원 730명과 국내외 거주 가족들에게 격려 선물과 감사편지를 전달했다. 파견 임직원들에게는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만~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국내 거주 가족들에게는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200만~3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3월에도 중동 3개국에 체류하는 임직원 500여명과 가족들을 격려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김동선, 공개매수 물량 확대… 2100억 투입

(한화M&S 미래전략총괄 사장)

기존 1606만주에 1014만주 추가
일반주주 매도기회 감소 우려 반영

김동선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한화M&S) 미래전략총괄 사장(사진)이 공개매수 물량을 1014만3000주 늘린다. 특수관계인의 청약 참여로 일반주주의 매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매수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김동선 사장은 한화M&S 한화M&S 보통주 1014만3000주를 추가 공개매수하는 내용의 정정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22일 공시했다.

공개매수 물량은 기존 1606만주에서 2620만3000주로 늘어나 전체 물량의 약 31%에 해당한다. 매수 가격은 주당 8000원, 매수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기존과 같다. 매수 규모가 확대되면서 김 사장은 이번 공개매수에 개인 자금 약 2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물량 확대는 김동관 한화그룹 수



석부회장과 김동원 한화생명 부회장이 공개매수 청약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두 사람은 각각 676만 2000주(8%)와 338만 1000주(4%)를 청약할 예정이다. 합산 물량은 기존 매수 예정 수량의 63.2%에 달한다.

한화M&S는 두 사람의 참여로 일반주주의 매도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이들이 청약할 물량만큼 매수 수량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물량은 두 사람의 청약 예정 수량을 합한 1014만 3000주와 같다.

김 사장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제기된 주가 하락과 미래 성장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를 반영해 이번 공개매수를 추진했다. 당초 전체 보통주의 약 19%를 매수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정으로 비중을 약 31%까지 높였다.

공개매수 발표 이후 주가도 상승했다.

한화M&S의 21일 종가는 7440원으로 발표 직전 거래일인 지난 8일 종가(6080원)보다 22.37% 올랐다. 공개매수 가격인 8000원은 지난 8일 종가보다 약 32%, 발표일 기준 최근 한 달 평균 주가인 약 6300원보다 약 27% 높은 수준이다.

한화M&S 관계자는 “이번 추가 매수는 일반주주의 매도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동시에 주주 목소리 수용과 책임경영 의지를 한층 강화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M&S는 한화그룹 테크·라이프 부문의 지주사로, 올해 8월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테크 부문에는 한화비전·한화세미텍·한화모넨텀·한화로보틱스가, 라이프 부문에는 한화갤러리아·한화호 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이 속해 있다.

/원관희 기자 wkh@



내년 상반기 소비회복 효과 본격화 전망

» 1면 ‘내년 주요기업 성과급’서 계속

효과는 지금 시기가 집중된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고소득대 기업 종사가구가 주로 수혜를 받아, 이들의 지출이 다른 업종의 매출과 가계소득

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반도체 기업의 배당 확대도 올해 4분기 이후 소비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 제고 효과는 약 0.05%p로 추정됐다. 주식을 보유한 고소득

층의 선택적 지출을 중심으로 나타나겠지만, 주식 보유층이 넓어지면서 과급 범위가 과거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민간소비 회복세는 아직 품목·계층 전반으로의 확산이 제한적이나, 내년으로 갈수록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이 파급되며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애플, 태블릿 등 OLED 전환 속도 ‘K-디스플레이’ 수혜 기대감 커져

삼성D, 신형 맥북 등 OLED 패널 공급 LGD, IT용 OLED 사업 확대 추진

애플이 노트북과 태블릿 등 정보기술(IT) 기기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적용을 확대하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는 기존 액정표시장치(LCD) 개발도 검토하면서 OLED 전환 속도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28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국로스앤젤레스에서 ‘프로 앤 텔(Pro and Tell)’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OLED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맥북 프로와 OLED 아이패드 미니 등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두 제품에 OLED 패널을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도 물량 일부는 올해 3분기부터 공급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4분기에는 공급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애플의 OLED 적용 확대에 따라 IT용 패널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에서 8.6세대 IT용 OLED 생산라인 양산을 시작했다. 약 4조1000억원을 투입한 해당 라인인 기존 6세대보다 유리원판 면적이 약 2배 커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레노버에도 노트북용 탠덤 OLED를 공급하고 있다.

LGD디스플레이도 IT용 OLED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세금속마스크(FMM) 없이 화소를 형성하는 차세대 패

터닝 기술 ‘FLiPP(플립)’ 개발에 성공했다. 기존 WOLED 생산 인프라를 활용해 공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로, 노트북과 모니터 등에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매출 6조2770억원, 영업이익 2506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IT용 고부가 제품 확대와 원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노트북 패널 출하량이 전년 대비 3% 감소하는 반면 OLED 패널 출하량은 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OLED 노트북 패널 출하량도 2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유비리서치는 애플의 연간 OLED 패널 수요에서 IT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4.1%에서 2030년 12.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IT용 OLED 공급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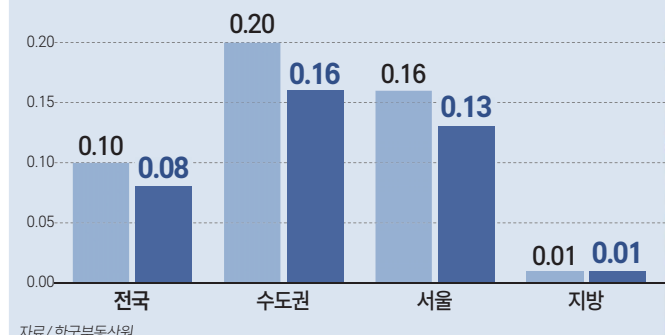
다만 애플이 일부 제품에서 LCD 개발을 병행하면서 OLED 전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과 OLED 패널의 높은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면 완제품 업체들이 제품별로 OLED 전환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는 OLED 적용 확대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실제 수혜 규모는 향후 제품별 채택 여부와 시장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원정 기자 hyeon@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

10월 둘째주 10월 셋째주 단위: %



자료/ 한국부동산원

서울 집값 89주 연속 상승… 강북·외곽 ‘경총’

부동산원 “대단지·역세권 중심 상승”

서울 집값이 89주 연속 오르며 다시 한번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강남3구는 일제히 하락했지만 강북과 외곽 지역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와 함께 서울은 전세가격 상승세도 가팔라지면서 올해 들어 전세값 상승률이 매매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은 지난 19일 기준 매매가격지수는 0.08%, 전세가격지수는 0.11%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올랐다.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89주 연속 오름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격이 하락 조정됐지만 정주여건이 양호하고 수요가 이어지는 대단지와 역세권, 중소형 규모 등을 중심으로 서울 전세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성북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0.36%씩

올랐고 ▲중구(0.35%) ▲도봉구(0.33%) ▲중랑구(0.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서초구는 0.32% 하락한 가운데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0.31%, 0.13% 내렸다.

경기는 한 주간 0.21% 상승한 가운데 남부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화성병점의 상승률이 0.65%에 달했고 ▲화성 동탄(0.57%) ▲안양 동안(0.56%) ▲성남 분당(0.53%) ▲군포(0.53%) ▲수원 영통(0.52%) 등도 0.5%를 웃돌았다.

연초 이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8.73%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 8.63%를 앞질렀다.

자치구별로는 성북의 전세값 상승률이 14.93%로 가장 높았고 ▲노원 14.31% ▲도봉 11.38% ▲성동 11.26% ▲강북 11.24% ▲금천 10.08% ▲송파 10.06% 등도 올해 들어서면 10% 이상 올랐다.

/안상미 기자 smahn1@

